

GANGJIN 

Web Contents



목차


목차	2
기사자료	3
강진의 문학 향기... 전국에 스며든다(2021. 4. 30. 뉴스워커)	3
첨부파일(1)	3

강진의 문학 향기... 전국에 스며든다(2021. 4. 30. 뉴스워커)

작성일 2021.05.03 08:50

등록자 시문학파기념관

조회수 290

첨부파일(1)  영랑&현구.png 38 hit/102.7 KB [다운로드](#)

강진의 문학 향기... 전국에 스며든다

👤 조준성 기자 | ⌚ 승인 2021.04.30 18:16 |

| 지난 30일 제18회 영랑시문학상, 제2회 현구문학상 시상식 개최

‘시인의 고향’ 강진의 문학의 향기가 전국 방방곡곡에 스며들고 있다.

강진군은 한국 시단의 중견 윤효림 시인(61·충북 제천)을 제18회 영랑시문학상에, 정관웅 시인(73·전남 완도)을 제2회 현구문학상 수상자로 각각 선정하고, 지난 30일 시문학파기념관 야외광장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영랑시문학상은 지난해부터 강진군과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전국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부산 지역 중견기업인 협성중건(회장 정철원)이 출자해 설립한 협성문화재단에서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3천만 원을 시상금으로 기탁해 국내 최고의 문학상으로 거듭나고 있다.

제18회 영랑시문학상을 수상한 윤효림의 시집 ‘편지에는 그냥 잘 지낸다고 쓴다’는 다양한 시적 대상을 미적 감각과 독특한 수사법으로 시의 개성을 살렸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0만 원이 수여되었다.

이와 함께 올해 두 번째 수상자를 배출한 현구문학상은 지난해 제정한 ‘강진군 영랑·현구문학상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제를 이원화시켜 문학상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특히 올해부터 수상 후보 자격을 강진군에 연고를 둔 전국 문학인으로 확대해 강진 출신 작가들의 자기 진작은 물론 애향심 고취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2회 현구문학상으로 선정된 정관웅의 시집 ‘비의 가지에 꽃눈으로’는 탄탄의 의미와 함께 주체와 사물 간의 긴장 관계를 잘 조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상금은 3백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동아일보와 공동 주최하는 영랑시문학상은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문학상으로 자리 잡았고, 현구문학상 또한 강진 출신 문학인들에게 애향심과 창작 의욕 고취에 도움이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두 문학상을 통해 ‘인문학 도시 강진’의 가치를 한층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GANGJIN-GUN. ALL RIGHT
RESERVED.

GANGJIN

Web Contents

